

75. 가스공사 건설현장의 압축기 조립자에서 발생한 폐렴

성별	남	나이	45세	직종	압축기 조립	작업관련성	낮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--	-------	----

1. **개요:** 지OO은 2002년 1월 23일부터 (주)J개발 소속으로서 H공사 T생산기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. 2002년 6월 13일 K대학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.

2. **작업환경:** 지OO은 2002년 1월 23일부터 (주)J개발에 소속된 반장으로서 보통 하루 10시간씩 H공사 T생산기지 건설현장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압축기를 동료 근로자와 함께 조립하였다. 경우에 따라서 가끔씩 짧은 시간 동안 산소 절단작업도 하였다.

3. **의학적 소견:** 지OO은 2002년 숙소에서 축구경기를 보면서 술을 마셨으나 과음은 하지 않았다. 다음 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출근하지 않고 숙소에서 쉬었는데, 1개월 전쯤에도 머리가 아프고 춥다고 하였으나 하루 쉬고 나서는 괜찮았다. 그 다음 날인 12일에도 머리가 아프고 춥다고 하면서 처음 방문한 G의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기침, 발열 및 오한,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전원하였다. 흉부 컴퓨터단층사진상 양상엽, 우중엽, 좌하엽 등의 광범위한 괴사성 폐렴 소견이 있어 다시 전원하였다. 이후 방문한 K대학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오후 12시 30분 응급실 방문시 체온이 36.7 ℃, 맥박수가 분당 120회, 호흡수가 분당 24회, 수축기 혈압이 60 mmHg이었다. 과거 병력상 12세 때 결핵을 치료하여 완치되었고, 어릴 때부터 기관지 천식이 있어 간간히 기침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. 혈액응고검사상 섬유소원이 690(참고치 180-385) mg/dl, PT/aPTT 14.7/41.7(참고치 10-14/25-35), 총단백/알부민 5.2/2.3(참고치 6.0-8.1/3.2-5.3) g/dl 등으로 패혈증 소견을 보였고 객담 및 혈액의 세균배양검사서 폐렴간균(*K. pneumoniae*)이 확인되었다. 심장 수축강화제, 산소, 항생제 등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나 오후 6시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68%가 되어 기관 삽관 후 기계호흡을 시작하였다. 오후 10시 30분 심장 박동이 멎어 심장 마사지를 한 결과 10분 후에 심장 박동이 돌아왔고, 오후 11시 30분에도 혈압을 측정할 수 없게 되어 다시 심장마사지를 하였다. 13일 오전 1시경부터 반혼수 상태가 되면서, 오전 3시 45분부터 4시 2분까지 다시 심장마사지를 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. K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선행사인이 폐렴, 직접사인이 패혈성 쇼크(추정)로 기록되어 있다.

4. **결론:** 지OO은

- ① 객담 및 혈액의 세균배양검사서 폐렴간균이 검출된 폐렴 및 그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는데,
- ② 입사 당시 채용건강진단에서 호흡기질환이 없었고, 다른 질병력도 없었다고 보이지만,
- ③ 입사 후 약 6개월간 수행한 압축기 조립, 설치작업 및 산소 절단작업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거나, 면역기능에 영향을 미쳤을 만큼 과로하거나, 작업 장소가 감염을 유발할 만한 특수한 환경이라고 볼 수 없어,

지OO의 폐렴 및 그로 인한 패혈성 쇼크는 산소절단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.